

한국-중국, 신산업 육성 협력해야

KIEP, 태양광·바이오제약·헬스케어 겹쳐 ... FTA 관세 조정 필요성

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은 8월30일 <한국-중국 경제관계 20년: 회고와 앞으로의 과제> 보고서에서 “한국과 중국이 육성하고 있는 신산업의 많은 영역이 서로 중복된다”며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.

정부가 2009년 확정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과 중국 정부가 2010년 발표한 전략적 신흥산업을 보면 태양광, 풍력, IT융합, 바이오제약, 그린수송시스템 등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분야가 겹친다.

그러나 우리나라의 헬스케어, 교육, 금융, 콘텐츠,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은 첨단제조업에 집중된 중국의 신산업전략과 차별화한 부분이다.

KIEP는 신성장동력 중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모두 비교열위에 있는 에너지절약, 환경보호, 바이오, 신에너지, 신소재 등 영역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.

또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한국계 유통서비스업의 현지 진출, 고급소비재시장 접근, 한국-중국 자유무역협정(FTA)을 통한 관세·비관세 장벽 낮추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.

한편, 위안화 국제화, 한국-중국 FTA 체결 등으로 금융협력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금융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모델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8/30>